

# 강진의 여름밤, 벌써부터 '흥행 예감'

## 제3회 강진하맥축제, 사전예약 만나질 만에 전석 매진

강진군의 대표 여름축제인 제3회 강진 하맥축제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지난해 제2회 강진하맥축제는 99개 테이블 전석 매진과 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그 열기를 더욱 이어가며 개최 전부터 대박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축제의 사전예약자석 135개 테이블은 접수 시작 단 만나질 만에 전석 매진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테이블당 가격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진까지 3일이 걸린 것 대비 올해는 단 몇시간 만에 전석 매진되며 하맥축제에 대한 기대감과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하맥축제는 편의시설 확충과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층 더 쾌적하고 풍성하게 관광객을 맞는다.

먼저, 물놀이장은 지난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입장 게이트를 2곳으로 분산해 혼잡과 대기시간을 줄인다. 또한 안개분사 시설, 대형 그늘막 트러스, 무더위 쉼터, 쿨링버스 등 폭염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해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맥주 제공 방식도 개선됐다. 올해는 병맥주 대신 생맥주가 제공되며, 사전예약자 구역에도 전용 맥주 배부 부스를 추가로 설치해 편의를 높였다. 전체 좌석 수 1,000석 추가 확보, 임시 편의점 입점 등으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축제의 마지막 날 밤에는 화려한 드론쇼가 펼쳐져, 여름밤의 낭만과 감동을 절정으로 이끌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하맥축제는 단순한 여름 이벤트를 넘어, 강진을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강진의 특산맥주인 하멜촌 맥주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강진만남여행 프로그램과 연계해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강진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곡성물 보양대전' 최대 30% 할인 기획전 진행

### 민물장어, 참송이, 추어탕까지! 무더위 이겨낼 곡성 보양식 총출동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을 맞아 곡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여름철 보양식 특별 기획전인 '마지막 기력충전! 곡성물 보양대전'을 8월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3일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 보양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속있게 여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기획전 할인 구성은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판매 품목은 주식회사 새벽(곡성)의 민물장어와 옥과농원의 참송이이며 이외에도 마루푸드 '심청골 추어탕', 딱정네영농조합법인 '쌀조청', 강변축산의 '자미유정란', 미카129의 '건강 간편식 주스' 등 소비자들의 무더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한편, 곡성물은 본 기획전과 더불어 소비자 참여형 리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이벤트는 상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 할인쿠폰(텍스트 1,000원, 포도 2,000원)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매주 금요일 발급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곡성물 보양대전을 통해 곡성 농특산물의 건강한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에게는 무더위 극복과



실속 소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특성과 트렌드에 맞는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곡성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곡성/이경수 기자

## 구례군, 신규농업인 대상 양봉 기초기술 교육생 모집

전남 구례군은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양봉기술 양봉 반 기초기술 교육생을 오는 9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봉 기술에 관심 있는 신규 농업인, 청년농,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이론과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실제 영

농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대폭 강화했으며, 양봉에 대한 기초부터 실무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은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열린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

성해 구례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귀농귀촌팀 ☎ 061-780-8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양봉 기술 교육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구례군은 지역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카메라 뉴스



## 함평군, 침수 축산농가에 긴급 방역... 전염병 차단 총력

전남 함평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 활동에 나섰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일부 축사에 빗물과 토사가 유입되면서 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군은 이번 폭우로 인해 다량의 빗물과 토사가 축사 내부로 유입돼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판단해 즉각적인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자체 방역 차량과 함평 축협의 공동 방역 차량 등 총 5대의 장비를 긴급 투입해,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 및 가축 질병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평/전광훈 기자



## 무안군, 급식 관계자 대상 '우리쌀 가공식품 교육' 성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무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2025년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 관계자 15명이 참여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이수했다.

참가자들은 쌀을 활용한 다양한 급식메뉴와 가공식품 조리법을 배우며,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익혔다. 특히, '참새방앗간' 정민수 대표가 강사로 나서 우리 쌀과 양파로 만드는 퓨전양파떡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급식 현장에서 우리 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 영광군,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 운영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8월부터 9월 초까지 관내 11개 읍·면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74개소, 1,0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운영한다.

하반기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은 12명의 강사가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찾아가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활용 △방사능 방재체계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는 2023년부터 주민들에게 방사능방재 교육을 실시한 전문적인 강사로, 매년 방사능방재교육 아카데미를 수료한 영광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